

장수군 축구센터 유치 열망

최종 선정 위한 범군민결의대회 개최

장수군은 12일 한누리전당 산디관 일대에서 장영수 군수, 김종문 의장, 체육인, 유관기관,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결의 범군민결의대회 및 축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엘리스 치어리더 팀의 식전 공연으로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장영수 군수 인사, 김종문 군의장 격려사, 체육회의 군민 염원을 담은 결의문 낭독, 유치 기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군민들의 축구센터 유치를 염원하는 구호를 외치며 축구종합센터 장수군 유치 결의를 다졌다.

이후 장수종합경기장에서는 축구협회 선수 등록 군민과 동호인, 체육인들의 유치 기원 친선 축구대회가 열렸다.

현재 군민들은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유치를 기원하며 축구협회 선수 가입을 통한 축구에 대한 범군민적



장수군은 12일 한누리전당 산디관 일대에서 축구센터 유치를 염원하는 구호를 외치며 축구종합센터 장수군 유치 결의를 다졌다. 사진은 장영수 군수.

관심을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민들은 축구센터 유치 서명 운동을 전개하며 축구센터 장수군 유치를 열망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달 27일 대한축구협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1차 서류심사 결과 대상지 24개 지방자치단체 중 장수군이 12개 지자체에 선정됨에 따라 최종 유치를 향한 온 군민 열기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축구종합센터 유치 추진 협의회 출범을 시작으로 범군민 서명 운동, 친선축구경기, 장수군의회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장수군 유치 건의안 채택 등 유치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장수군 유치는 단순 유치 의미를 넘어 선수단과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 국가균형발전의 첫 단추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수군민들과 온 힘을 합쳐 꼭 장수에 축구센터가 유치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무상지원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인증 업체서 2개교 244명에 공급

진안군은 4월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과일 간식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어린이 식습관 개선과 국산 제철 과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1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관내 12개교 244명의 학생들에게 신선한 과일 간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과일 간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

수관리인증(GAP)을 받은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단감·토마토 등 10가지 이상의 과일·과채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고 있는 11~18세 기준 1회당 섭취량(100~150g)을 적용해 1인당 1회 150g의 조각과일을 컵이나 파우치 형태로 제공한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과일

인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된 HACCP(식품위생관리시스템) 인증 직격업체에서 공급 하도록 해 식중독 예방 등 안전사고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덕규 농업정책과장은 "신선한 과일 간식 제공으로 성장기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과 균형잡힌 영양섭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과일 소비 확대를 통한 과수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가축분뇨 관련시설 특별점검

진안군은 불철 퇴비와 액비 살포시기를 맞아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5월 말까지 가축분뇨 관련시설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가축분뇨는 유기질과 부영양화 물질인 질소 인의 농도가 높아 농경지에 가축분뇨 퇴액을 무분별하게 야적하거나 살포하면 하천으로 유입되어 여름철 녹조 발생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번 점검은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진안군 직원 등 3개반 6명으로 전담 점검반을 편성하고 응답호 주요 하천변 및 축산시설을 직접 방문해 시설관리 전반을 지도점검 한다.

가축분뇨 및 퇴액을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부적절하게 야적하거나 방치해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작물 재배와 관계없이 퇴액을 농경지에 파다 살포하는 행위, 축사 주

변으로 가축분뇨를 유출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점검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배철기 산업환경국장은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잘 활용하면 소중한 자원이 되지만 부적절 관리 등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하천에 녹조가 발생하는 등 수질오염이 될 수 있다"며 "가축분뇨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은 지난 12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산림분야 근로자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숲, 우리 손으로 키우고 가꿔요"

무주군, 산림분야 근로자 발대식

무주군은 지난 12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산림분야 근로자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기념식과 참여 근로자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발대식에는 황인홍 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을 비롯한 산림분야 종사자 등 170여 명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산림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1자산"이라며 "여러분의 손에서 지켜지고 자원화 되어 재탄생하게 된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올해도 우리 군이 산림자원의 보고지라는 것을 각인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고 산물 및 재해보험 산업을 보호하며 목재펠릿 원료 확보 등 산물을 수집하는데 있어 안전하게 최선을 다하지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며 의지를 다졌다.

무주군 산림사업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등 11개 분야에서 진행되며 산림자원조사단원들은 숲

가꾸기 산림 자원을 조사하는 일을 한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은 산물수집과 공공 숲 가꾸기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도로변 숲 관리단은 도로변 나무 관리와 공공 숲 가꾸기에 투입되며 숲 가꾸기 기계팀 사업단은 숲 가꾸기 작업시 기계팀 작동을 맡는다. 산물 전문예방 진화대에서는 산물예방과 진화, 산림병해충 예방단은 산림병해충 예방과 조사, 방제 업무를, 산림재해방제단은 산림재해 점검 및 복구, 임도시설 유지관리를 하게 된다.

도시녹지관리원은 도시녹지 사후관리를, 숲 생태 관리인은 숲 해설 서비스 제공, 녹색일자리 창출 사업에서는 금길 현황조사 및 자료정리, 가로수 관리단은 가로수 전지 점검과 유지, 관리를 하게 된다. 산림분야 일자리는 산림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하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가꾼다는 취지를 담고 운영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재난구호지원 기관단체 간담회

2019년 무주군 재난구호지원 기관·단체간담회가 12일 무주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2019 재난구호 계획에 따른 기관별 역할 및 교류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교육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청 관련 공무원들과 무주군 자원봉사센터, 새마을운동본부 무주군지회, 대한적십자무주지구협의회, 무주군지역자율방재단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참석자들은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재해구호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임시주거시설 지원을 비롯한 급식·식품·의류·침구 등의 생활필수품 지원, 의료서비스 및 예방·방역활동, 위생지도 지원, 심리 회복 지원 등 구호방법에 대해 공유했으며 재해구호 추진 절차와 기관별 임무, 구호물자,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된 장소들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군,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진안군은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을 이달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친환경농업 직불제에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차이의 일부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지가 대상이지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능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등에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도 지원 가능하다.

군은 올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예산 4억6400만원(국비 2억4300, 도비 2억2100)을 확보하고 인증단계(유기? 무농약),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계에 따라 12월 중으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 단가는 논 무농약 50만원, 유기농 70만원, 유기지속 35만원, 밭 무농약 110~120만원, 유기농 130~140만원, 유기지속 65~7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 실천에 앞장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친환경인증농가는 빠짐없이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추진

장수군이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을 확대해 오는 22일까지 재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각종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수분야의 경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태풍(강풍), 우박, 지진, 집중호우 등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특약으로 관리되었던 일소 피해와 가을 동·상해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면서 각종 재해에 따른 농가의 보장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군에는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자부담을 10% 추가 지원함으로써 가입희망 농가는 지역 농·축협을 통해 평년대비 반값으로 가입 할 수 있다.

김성수 과장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각종 재해에 대한 농작물의 피해 보상과 경영 불안을 조금 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적극 가입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